

## 고흥, 울진 신규 국가산단 예타면제 신속 추진

- 고흥 우주발사체·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안 국무회의 의결
- 국가 정책사업 예타 조사 면제 등으로 미래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시장 선도 추진

□ 제27회 국무회의에서 「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」과 「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」이 의결되었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신규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흥과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\*으로 결정됨에 따라,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.

\*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(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제3항)

□ 국토교통부는 미래첨단전략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작년 3월 15일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·발표하였다.

○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유일한 우주발사체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군에 153만㎡(약 46만평) 규모로 조성된다. 우주발사체 제작·개발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, 이노스페이스 등 앵커·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할 계획이다.

○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(한울 8기, 신한울 2기 예정)의 원전 집적지인 경북 울진군에 152만㎡(약 46만평) 규모로 조성된다. 원전의 무탄소 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GS건설, 삼성 E&A 등 앵커기업들이 입주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절차\*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, 지자체·전문가·수요기업 등의 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'25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.

\* 국무회의 →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(LH⇒기획재정부) → 자문회의(기획재정부) → 확정

□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“지방권 최초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 중인 고흥, 울진 국가산업단지는 '26년 상반기 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”면서,

○ “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15개 국가산단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('23.11.)된 용인과 금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흥 및 울진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국가산업단지도 '26년 말까지 국가산업단지로 차질 없이 지정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	책임자	과장	김민태 (044-201-3674)
		담당자	사무관	조남희 (044-201-3695)

□ **사업개요**

<b>위치</b>	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일원	<b>사업시행자</b>	LH+전남개발공사
<b>면적</b>	153만㎡(46만평)	<b>유치업종</b>	우주발사체 산업

□ **추진경과**

- '23. 3월 :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(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)
- '23. 4월 : 공동 사업시행자 선정
- '23.12월 :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착수
- '24. 2월 : 예타면제 추진 발표\*(비상경제장관회의)
  - \* 기업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, 경북 울진 예타면제 추진
- '24. 3월 : 기업수요 확보 위한 입주협약 체결(국토부-기업-지자체-사업시행자)
  - \* 한화에어로스페이스, 비츠로넥스텍, 이노스페이스, 세일엑스, 더블유피, 우리별, 파루, 동아알루미늄, 우나스텔라, 중앙이엠씨,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

□ **개발구상** :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강국 도약 “우주발사체산업” 혁신 거점

- 나로우주센터, 복합안보우주센터(국방부), 우주산업 클러스터(과기부) 연계 “우주발사체 국가산단” 조성 추진
- 연소시험시설, 민간발사장 등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인프라 구축
- 우주발사체 관련 앵커·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적극 유치

□ **향후계획**

- 산단계획 수립·승인신청('25.上) → 관계기관 협의 → 국가산단 지정('26.上)

□ **사업개요**

<b>위치</b>	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	<b>사업시행자</b>	LH+경북개발공사
<b>면적</b>	152만㎡(46만평)	<b>유치업종</b>	원전 활용 수소 생산

□ **추진경과**

- '23. 3월 :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(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)
- '23. 4월 : 공동 사업시행자 선정
- '23.12월 :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착수
- '24. 2월 : 예타면제 추진 발표\*(비상경제장관회의)
  - \* 기업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, 경북 울진 예타면제 추진
- '24. 3월 : 기업수요 확보 위한 입주협약 체결(국토부-기업\*(6개)-지자체-사업시행자)
  - \* 삼성E&A, GS건설, GS에너지, 롯데케미칼, 효성중공업, BHI

□ **개발구상** : 원자력을 활용한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특화단지 조성

-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로서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 활용 수소 생산
-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조성 및 수소·전력 다사용 기업 유치
- 수소 활용 기간산업 연계 및 동해안 수소 경제벨트 강화
  - \* 울진(수소생산) - 동해(수소저장·운송) - 삼척(수소기업육성) - 포항(수소연료전지)

□ **향후계획**

- 산단계획 수립·승인신청('25.上) → 관계기관 협의 → 국가산단 지정('26.上)

**참고3**

**고흥, 울진 국가산업단지 위치도 ※ 대용량 파일 별첨**

**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**



**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**

